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건설산업 추진전략 모색

2013.10.28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을 위한 부문별 발전 방향과 전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연구위원/공학박사
sichoi@cerik.re.kr

CONTENTS

01

건설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창조경제가 주는 의미

02

건설산업의 창조경제성 평가

03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의 방향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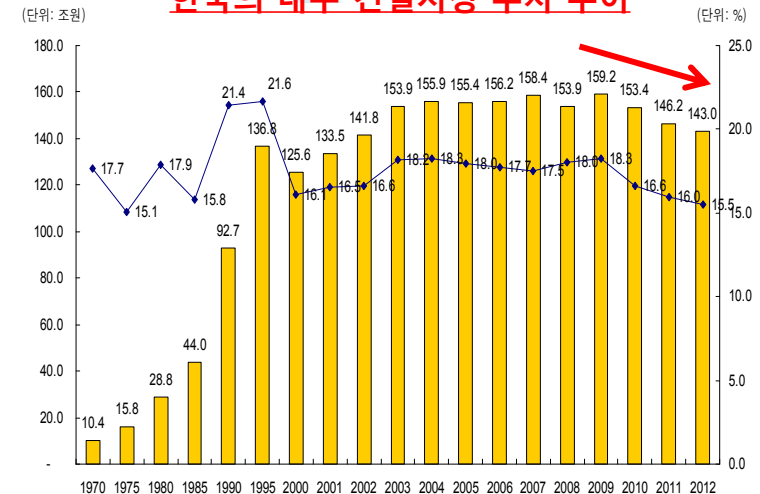
04

결론

건설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1) 표면적 위기

- 국내 건설산업 2009년 이후 4년 연속 투자 감소
 - 2010년 153조원 → 2012년 142조원
- 해외수출이 거의 유일한 대체시장으로 인식
 - 해외 시장은 대형 기업의 시장(수출의 80% 이상)
 - 리스크 증가로 매우 도전적인 시장으로 변화
 - 해외 시장의 손실은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구조로 변화
- 건설산업: 종합 약 12,000개, 전문 약 4~50,000개
 - 대다수의 기업은 내수 시장에 의존 → 공공투자 및 제도적 규제 완화에 의존
 - 공공 투자 등 시장 확대 → 기업의 투자 및 시장 창출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중
 - 건설산업 역사상 가장 큰 리스크 상황으로 평가
- 더 큰 문제는 건설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임.
 - 국가 경제의 내수시장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서의 건설산업 위상 약화
- 현 정부의 대표적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영역에서 성장 기조인 창조경제 산업군으로 인식되지 못함.
 - 경제 민주화 영역으로 정책 드라이브 추진

한국의 내수 건설시장 투자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의 내수 건설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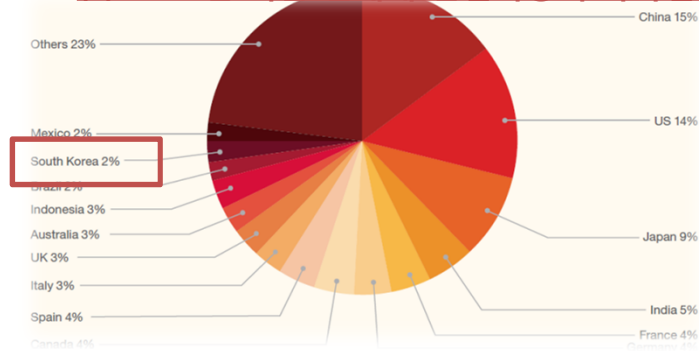
구분	2015년	2020년
GDP 대 건설투자 비중	13.0~13.5%	11.0~11.5%
건설투자 금액 (2000년 불변금액 기준)	134.6조~139.8조원	140.1조~146.4조원
구분	2010~15년	2015~20년
건설투자 연평균 증가율	1.9~2.6%	0.8~1.7%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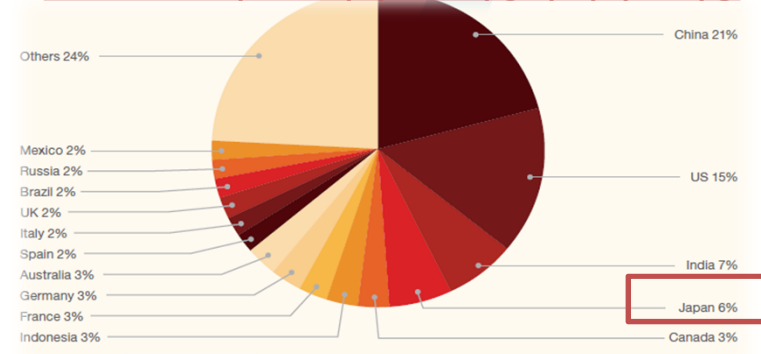
건설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2) 내재적 위기

- 미시에서 거시적 요인으로 경제적 우선순위 변화
 - 양적 성장, 시장 활성화 등 → 질적 성장, 인구, 도시화율, 경제성장률 등 성장 잠재력 한계 봉착
 - 인구 성장률 OECD 최저수준(1.2명), 도시화율 85.4%(OECD 통계), 일본과 미국보다 높은 수준
 - 전세계 건설 시장의 국가별 비중: 2010년 2% → 2020년은 2% 이하로 주요 순위에서 탈락(Oxford Economics 보고서 2011)

(a) 2010년 기준 전세계 건설시장의 국가별 비중



(b) 2020년 기준 전세계 건설시장의 국가별 비중



- 성장 정책 → 복지 이슈가 전 사회를 지배: 투자 우선순위가 낮아짐
-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화(정부 및 일반 국민)
 - 부정, 부패, 담합, 약자 배려 부족 등 사례 속출
 - 기술 혁신 혹은 융합을 통한 글로벌 모범 사례와 창의적 일자리를 보여주는데 실패
 - 산업의 각종 제언 → 과거 회귀형 제안으로 오해 등

위기 탈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돌파구를 찾지는 못하고 있음!!

창조경제의 의미와 건설산업에 주는 시사점(1)

-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를 의미
 - 국민 창의성과 과학 및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간,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강조
- 노동/자본의 양적 투입 → 인적자본, 기술혁신력
 - 개도국형 외연 성장 → 선진국형 선도 내연성장
 - 모방형 → 혁신 창조형
- 현 정부의 창조경제론 특징과 구조
 - 과학기술정책범위: 기술/지식확보~신사업 창출
 - 융합이 신사업 창출의 가장 중요한 수단
 - 고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 연계와 생태계 조성을 대폭 강조 → 기관별 분업과 협업
 - 중소/중견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위치
 - 융합형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강조
- 신성장 동력 예시 중 건설산업 관련 분야
 - 고령친화산업(실버타운 등)
 - 원잔력 산업
 - 물류해운교통산업
 - 해외건설/플랜트/원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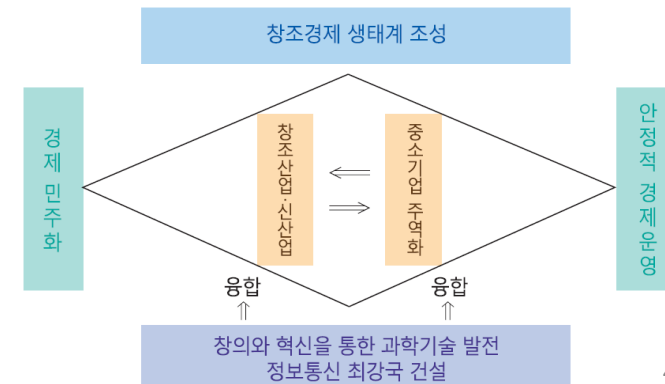
현 정부의 창조경제의 개념



국외 창조경제의 개념(현대경제연구원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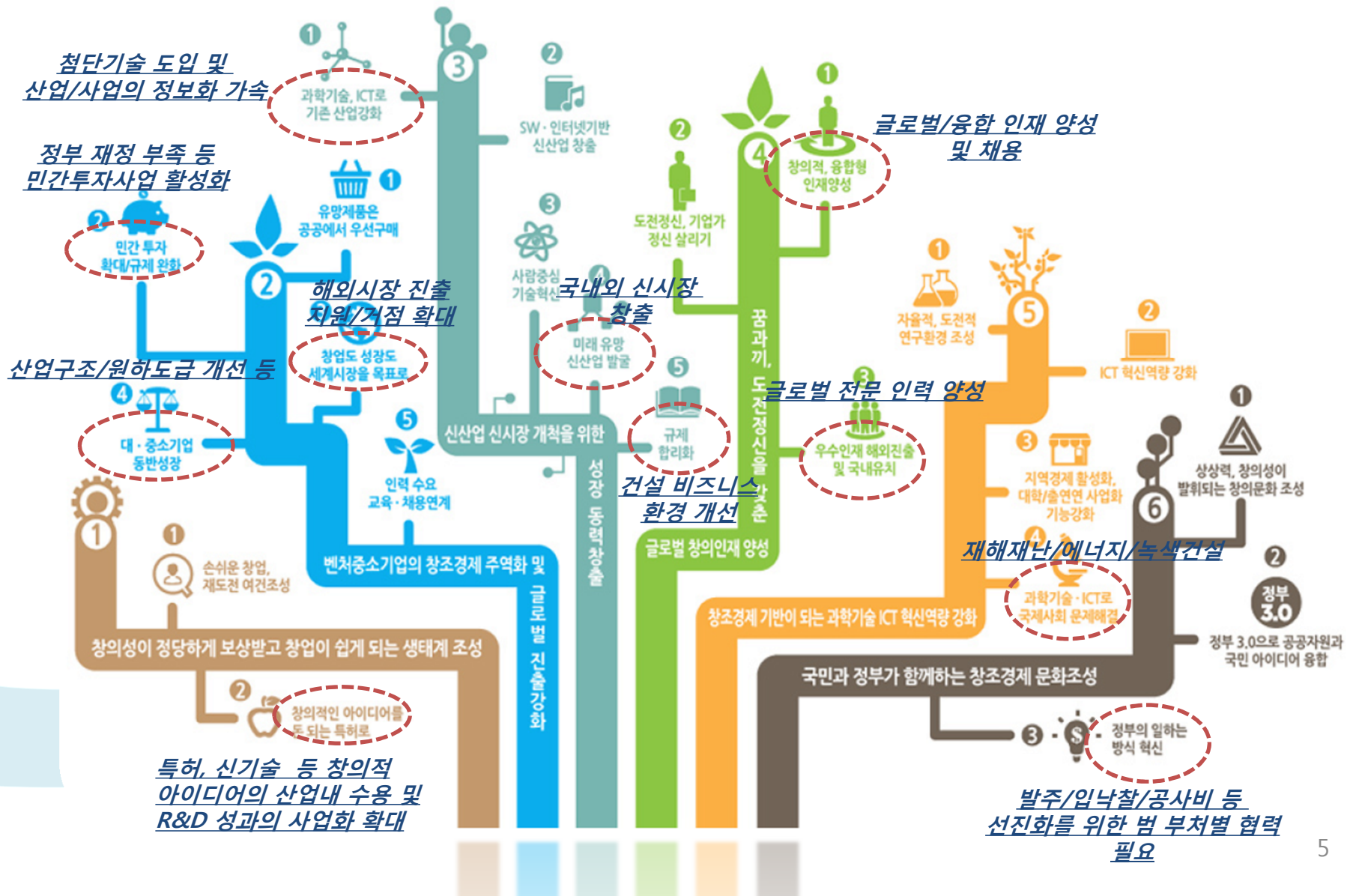
개념/정의	주요 내용
존 호킨스 (2001)	창조생산품의 거래로 설명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적재산)
유엔무역개발 회의회 (2010)	사회적 통합, 문화 다양성, 인간개발을 촉진하면서 소득과 고용창출 및 수출을 증가시키는 경제 시스템
노무라총합 연구소(2012)	가격이 아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성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선택된 제품과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진 경제

창조경제의 구조(산업경제, 2013,04)



창조경제의 의미와 건설산업에 주는 시사점(2)

정부의 창조경제 6대 전략(2013)과 건설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부문



창조경제의 의미와 건설산업에 주는 시사점(3)

- 창조경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각종 전략 → 개별적으로 건설산업 오랜 고민 분야
 - 시장, 기술, 인재양성, R&D, 규제 개선 등 세부 영역별 개선/혁신 방안 2000년 초반부터 이미 제시
 - 산업, 기술, 사업, 조직간의 진정한 융합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음
 - 혁신/개선대상 자체보다는 **달성 방법/주체의 변화**를 강조
- 6대 전략의 관련 세부 실천계획별 건설산업의 주요 활동
 - **창의적 지적 재산의 활용**: R&D 등을 통해 특허, 신기술 등 지적 재산권의 현장 적용 가속화
 - **신시장 창출**: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에서의 신성장 동력 발굴
 - **민간투자 활성화/규제개선**: 정부 재정 부족: 민간투자사업 등 민관협력 사업 확대 및 관련 규제 개선 필요
 - **첨단기술/ICT 기술의 도입 및 활용**: 첨단 건설 자재/공법 기술, 재해재난, 에너지, 친환경 기술, 정보화 기술 등의 적극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R&D 포함)
 - **창의적/글로벌 인재 양성**: 대학/재교육/평생교육과 연계된 대학 및 기업 양성 프로그램 혁신
 - **경제 민주화**: 대중소 상생, 원하도급 관계 등 산업 생태계의 불합리점 해소 등
 - **정부가 일하는 방식**: 각종 정책/제도/기준 혁신의 범 정부적 협력 체계 확립(입낙찰제도 등)

한번도
못 들어본
개념이나 내용
은 없음 !!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 → 문제는 융합 !!

기술 분야/부문/인력 등의 단순 나열/통합/연계가 아닌.....

민간주도형 내외수 시장 선도 융합형 사업/상품/기술 필요

건설산업의 창조경제성 평가(1)

- 창조경제의 방향/실천사항과 그간 건설산업의 각종 이슈와의 가장 큰 차이는 달성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창의적 융합
 - 중견/중소기업의 성장
 - 첨단기술의 적용
 - 경제 민주화: 본 항목은 이미 타 영역에서 각종 논의 및 조치가 있기 때문에 본 평가에서는 제외
- 세가지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창조경제와 유사한 기존 건설산업의 주요 활동을 평가
 - 시장: 국내외 건설시장
 - 사업: 설계/시공 생산 기술 및 생산 프로세스 관리 기술 등
 - 기술: R&D
 - 기업: 기업 내부 혁신, 조직 및 기업간 협력
 - 제도: 규제, 입찰 제도, 생산체계 등
- 평가는 5점 척도를 활용하여 각 영역을 아래의 방식으로 평가

평가 예시

구분	1) 창의적 융합					2) 중견/중소기업의 성장					3) 첨단기술					Comment
해외건설시장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 1 매우 미흡 ~ 5 매우 양호

건설산업의 창조경제성 평가(2)

시장 영역

❖ 1 매우 미흡 ~ 5 매우 양호

구분	1) 창의적 융합					2) 중견/중소 기업의 성장					3) 첨단기술					Comments
해외건설 시장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공기업과의 협력, 타 산업과의 협력, 해외 건설기업과의 협력, 개발/투자사업 등 다양한 사업 진출 모형을 선도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음 ❖ UAE 원전사업은 대표적인 협력모델임 2) 해외시장은 그 특성상 여전히 10대 대형 건설기업의 주 시장이 됨. 해외 시장에서 강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모델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해외 시장은 가격 등 다양한 이유로 글로벌 소싱이 일반화되어 있어 대중소 동반 진출이 쉽지 않은 이유도 있음 3) 해외건설시장은 사업 조건, 공기 등 다양한 이유로 혁신적 기술 적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보다 첨단기술의 적용이 특히 요구됨(모듈화 공법 등)
국내건설 시장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국내 시장은 공공 재정부족, 투자유인 부족으로 장기간 불황에 접어들었음. 이로 인해 창의적 융합에 의한 사업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음. 2) 국내시장에서 중견/중소기업은 건설산업의 생산체계가 구분한 제도적 보호장치에 의존적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 반면에 창의적 기술력에 의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부족하여 타 산업의 강한 중견/중소기업은 많지 않은 실정 ❖ 최근 경기 침체는 이들 중견/중소기업의 경영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3) 국내시장의 경우 특히 공공부문은 첨단기술의 현장 적용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첨단기술 적용 유인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건설산업의 창조경제성 평가(3)

시장 영역

❖ 1 매우 미흡 ~ 5 매우 양호

구분	1) 창의적 융합					2) 중견/중소 기업의 성장					3) 첨단기술					Comments
사업 (생산 기술 및 생산 프로세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건설 사업의 생산 프로세스(기획~유지관리)간 융합은 정보화 기술, 발주방식(턴키, IPD), 조직간 융합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 ❖ 해외 사업의 경우 발주방식과 최신 정보화 기술 적용을 적극 유인하고 있으나, 국내 사업의 경우 각 단계가 단절되어 사업의 생산성 향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 2) 국내의 중견/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은 주로 설계/시공중심으로 이에 대한 관심은 매우 약한 실정임. ❖ 종합건설업의 경우 직접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공종에 대한 첨단 생산 기술 보유도 취약 3) 생산 프로세스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BIM, PMIS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PLM(Product Life Cycle Management)가 강조되는 추세로 이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산업 전반에 확산되지는 못한 추세임. ❖ 또한, 모듈화 공법, 친환경 공법 등 다양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적용 역시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에서는 큰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기술 (R&D)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국토교통부 R&D사업의 경우 창의적 융합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수천억대의 관련 투자를 진행하여 좋은 평가를 가질 수 있음. (2013년 6095억원) ❖ 연구 결과의 현장적용성과는 아직 미지수로 평가 2) 건설부문은 아직 기술확보를 통한 수주/매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지 못하여 중견/중소기업의 관련 투자는 매우 저조한 실정 3) 첨단기술 투자 확대는 긍정적이나 하드기술에 대한 치중 및 공공과 민간의 첨단기술의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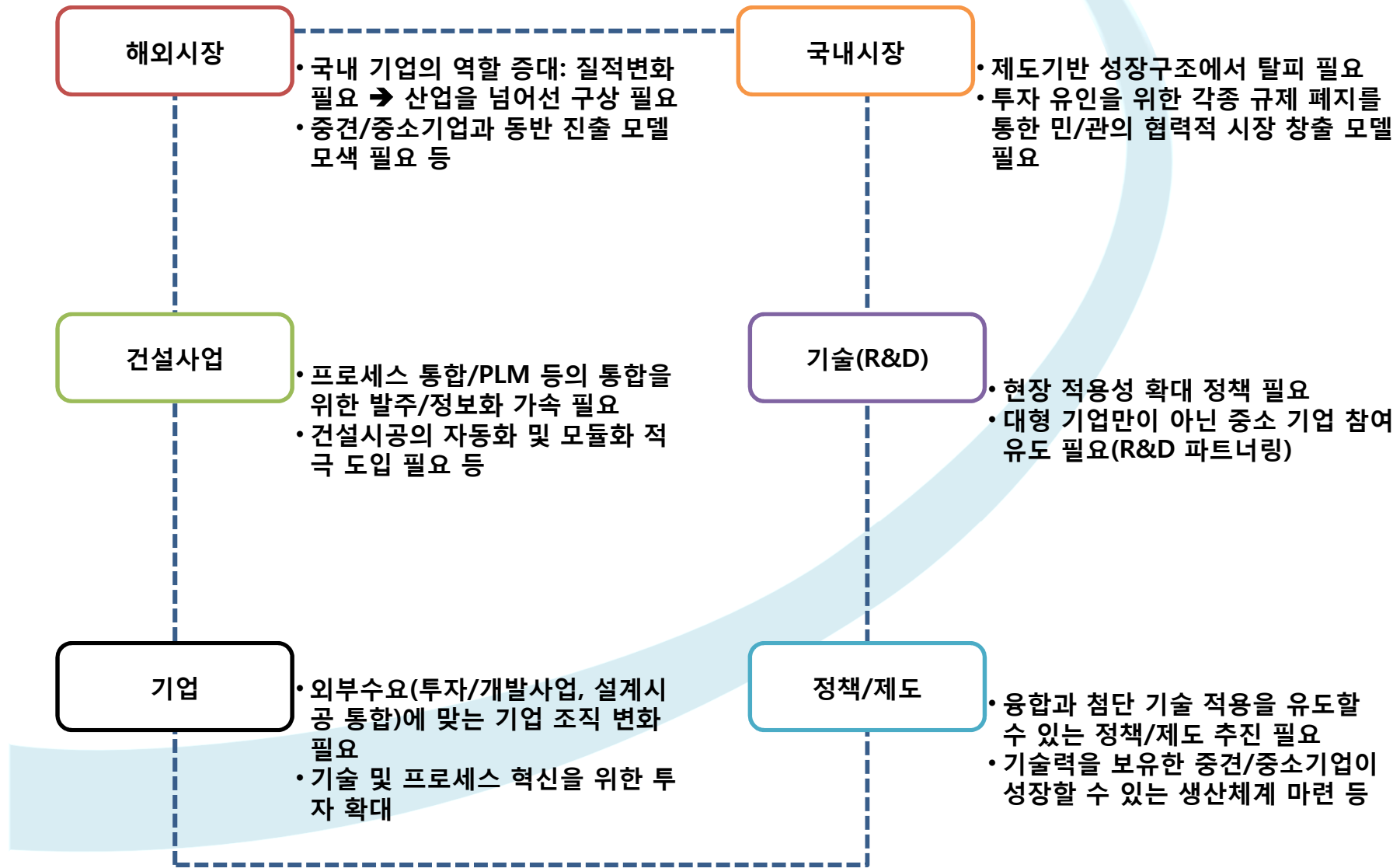
건설산업의 창조경제성 평가(4)

시장 영역

❖ 1 매우 미흡 ~ 5 매우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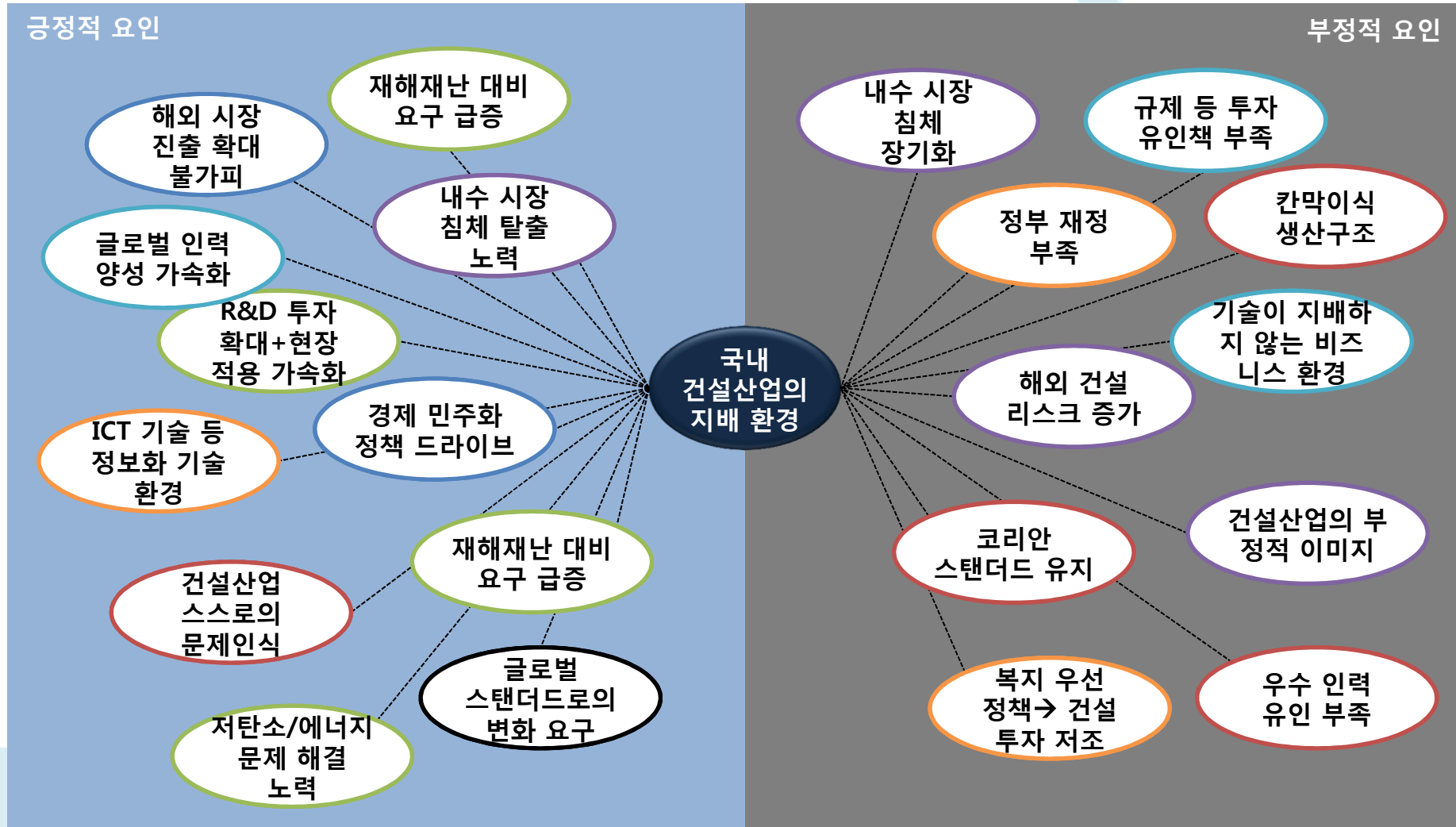
구분	1) 창의적 융합					2) 중견/중소 기업의 성장					3) 첨단기술					Comments
건설 기업 (조직/역할 측면)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사업 수행방식의 다양화, 참여 Value Chain의 확대는 건설기업의 조직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으나, 많은 기업은 여전히 건축/토목/플랜트 등 학제적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대형 기업의 경우 이러한 학제기반 조직의 운영은 국내외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원인도 되고 있음 ❖ 종래의 시공 중심 인력 구조에서 개발, 타당성, 엔지니어링, PM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2) 중견/중소기업은 아직 전통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음. 대형 기업에 비해 역할 다양화가 쉽지 않음. ❖ 중견/중소기업의 역할 다양화는 산업의 생산구조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 3) 대형 건설기업은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관리 기술과 프로세스간 융합을 위한 첨단 기술 적용이 중소기업에 비해 활발하지만, 선진국 기업에 비하면 열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
정책/제도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공공 제도와 기준이 창의적 융합을 유도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임. ❖ 설계/시공 통합, 기술융합 유도를 위한 발주방식과 설계 기준 등의 혁신이 필요 2) 외형상으로는 중소기업체의 보호 장치는 있으나,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과 제도는 취약 ❖ 건설산업의 제도의 변화 혹은 혁신은 고유의 갈등구조로 인해 쉽지 않은 것이 현실 3) 국토교통부는 R&D 예산의 비약적 확대를 통해 첨단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 건설사업에서 첨단 기술 적용을 유도하는 정책/제도의 확보에는 성공하지 못함

건설산업의 창조경제성 평가(5) 주요 시사점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의 방향과 전략(1)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에 영향을 주는 긍정 및 부정적 요인



해법은 긍정요인에 적극 투자+부정 요인 제거!!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의 방향과 전략(2)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을 위한 분야별 추진 메커니즘(융합 및 협력적 접근)

첨단
일자리

R&D + 현장 적용 동시에 추진

- 개별 기술의 융합 솔루션 개발
 - ❖ 첨단재료/공법 등
 - ❖ 녹색 기술/재해재난 대비 기술
 - ❖ 정보화 기술 등

▶▶▶
통합/일괄 추진

정책/제도/기준 혁신

- 첨단기술의 사업 수용을 위한 제반 조치
- 특정 부처가 아닌 범 정부적 일괄 해결

사업/기업 단위

사업발굴/
사전기획

기획

공기/공사비/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프로세스의 단축/융합

설계
(미래 사업의 핵심 단계)

첨단
일자리

구매조달

시공

유지관리

새로운
일자리

- 전향적 설계시공 통합 발주방식 도입(IPTD)
- 첨단 설계시공 및 관리기술
 - ❖ BIM, PLM, PMIS, 모듈시공 등
- 기업은 각 단계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사업 발굴 및 기획에서 이를 활용하여 사업 창출

향후 건설산업의 신시장 역할 예상
→ 리뉴얼 사업, 유지관리 사업(소액다건)
→ 자산관리로 확대 전망

융합형
인재
배출

관련 정부 및 산업과 연계/협력/융합

- 단순 건설사업이 아닌 비즈니스형 사업으로 추진: **도**급이 아닌 **시장/사업** 창출
-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협력
- 에너지, 물류, 조선, 전자/정보통신과 연계
 - ❖ 원자력, U-City, 대형 구조물 사전 제작 등

기업 조직 혁신/대중소 기업 협력

- 외부 수요(융합사업)와 맞는 기업 조직 및 인재 수급/양성 혁신
- 대중소 기업간 파트너링 → 부가가치 향상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의 방향과 전략(3)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정부, 국민의 연계 비즈니스 모델 창출 필요

- 해외시장뿐만 아닌 내수시장의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대형 건설 기업의 역할이 중요
 - 신시장을 선도 → 글로벌 Top Tier 기업을 목표로 한다
 - 면 완전히 새로운 변화 전략의 구사가 필요
 - 국내외 투자 및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 필요
 - 건설 물량 확보가 목표가 아닌 비즈니스형 산업 창출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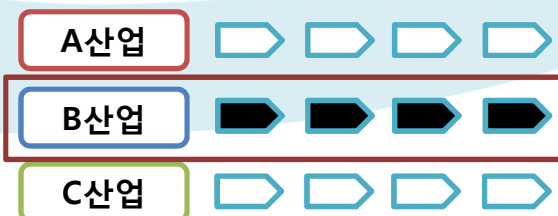
❖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사업
❖ 스마트 시티 + 도시 재생

- 세계적 건설기업 Strabag의 특화전략
 - ❖ Expanding geographically/자회사 독립 경영
 - ❖ PPP 사업 투자 확대: 토건 부문 95억 유로 투자
 - ❖ 틈새시장 공략: 공공 주도 건설정책보다는 민간 시장 강조 + 철도, 환경, 수로 등 틈새시장 공략
 - ❖ Expanding the value chain: 기획~운영까지 단일소스로 추진한다면 낭비 제거 가능
 - ❖ 서비스 사업까지 사업 확장(인도, 아프리카 등)
 - ✓ 지능형 교통시스템, 요금징수시스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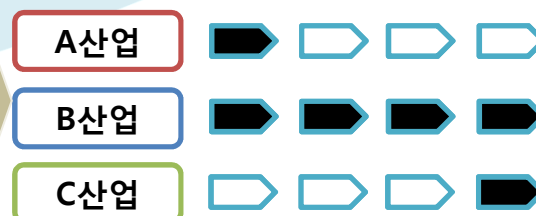
- 국내시장의 투자와 관련된 적극적 규제 해소 노력이 필요
 -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의 투자 규제를 해소
 - 전력요금 등 비합리적 공공요금 체계 해소
 - 민간투자/창의성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 마련 등

- 유럽의 스마트 시티 구상(유럽의 Open Innovation 전략 2013)
 - ❖ 경제위기가 지속 → 혁신,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논의
 - ❖ 도시들에 스마트 인텔리전스 기술과 환경 친화적 기술을 적용하여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유도
 - ❖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성장 효과를 예측
 - ✓ 사업 과정에 최종 사용자의 참여 즉, 도시, 학교, 아파트의 사용자 및 산학연이 협력해서 당면 문제를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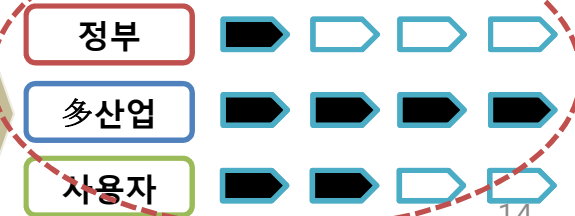
(a) 기존 산업별 사업 추진



(b) 산업별 융합에 따른 사업 추진



(c) 정부/산업/국민 융합에 따른 사업 추진



자료: 심영섭, 산업연구원, 2013 내용 일부 활용(a, b)

참고: 건산연 (미래성장위, 2012) 제안 필요 사업 예시

미션	사업 구분	사업 내용		기대 효과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중고 주택 성능 향상	노후 아파트 재정비		■주택 재정비 사업 활성화(조합원 추가 부담 경감,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
		녹색 동네 만들기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스쿨 - 석면 철거	■주택·빌딩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교육 효과 극대화 및 친환경 교육
				■노후, 저가, 재정비 소외 건물(주택 등)의 건강성 증대
	복지형 시가지 정비	유흥시설의 재탄생		■기존 공공시설의 개량, 성능 향상, 복합화, 용도변경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 → 복합 복지시설로 전환
기피(혐오) 시설의 개조		■도심 기피시설의 이전, 지하화 등으로 도시 쾌적성 증대		
스마트 라이프 라인	사통팔달 라이프라인과 지상공간 재창조	GTX 사업 :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수도권 과밀화 완화, 도심지 광역화 촉진 및 주택 선호도 분산 ■녹색교통 확대
		1, 2호선 노후 전철 지하화 및 지상공간 재구성		■상대적 낙후 지역인 서울 강북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상공간 재활용 및 쾌적화 확보
	U라이프라인과 국민 불편 최소화	지하 라이프 라인 첨단화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글로벌 코리아	글로벌 교통망 확충	국제적 공항 및 항만 육성		■동북 아시아 허브 공항 및 항만 육성 ■배후 도시를 국제적 비즈니스, MICE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도시 및 산업경쟁력 강화	서울 삼성동 복합교통환승 체계 구축 및 MICE 육성		■서울의 도시 경쟁력 제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산업시설의 첨단·복합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제고
블루오션 벨트	해양 자원의 성장 산업화	서·남해안 블루 비즈니스 벨트		■서·남 해안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 성장축으로 육성
		서남 해안권 교통 인프라 구축		■서·남 해안권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비즈니스 및 MICE 산업의 활성화 도모
	관광산업의 비즈니스화	고부가가치 테마섬 개발		■MICE 육성: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활성화
		비즈니스와 관광의 연계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의 방향과 전략(4)

건설사업의 첨단기술 적용 및 융합을 위한 개념(FIATECH Roadmap)

→ Facility Life Cycle Management(FLM) 필요

제조업/플랜트 사업에서는
PLM의 명칭으로 활발한
연구개발 및 적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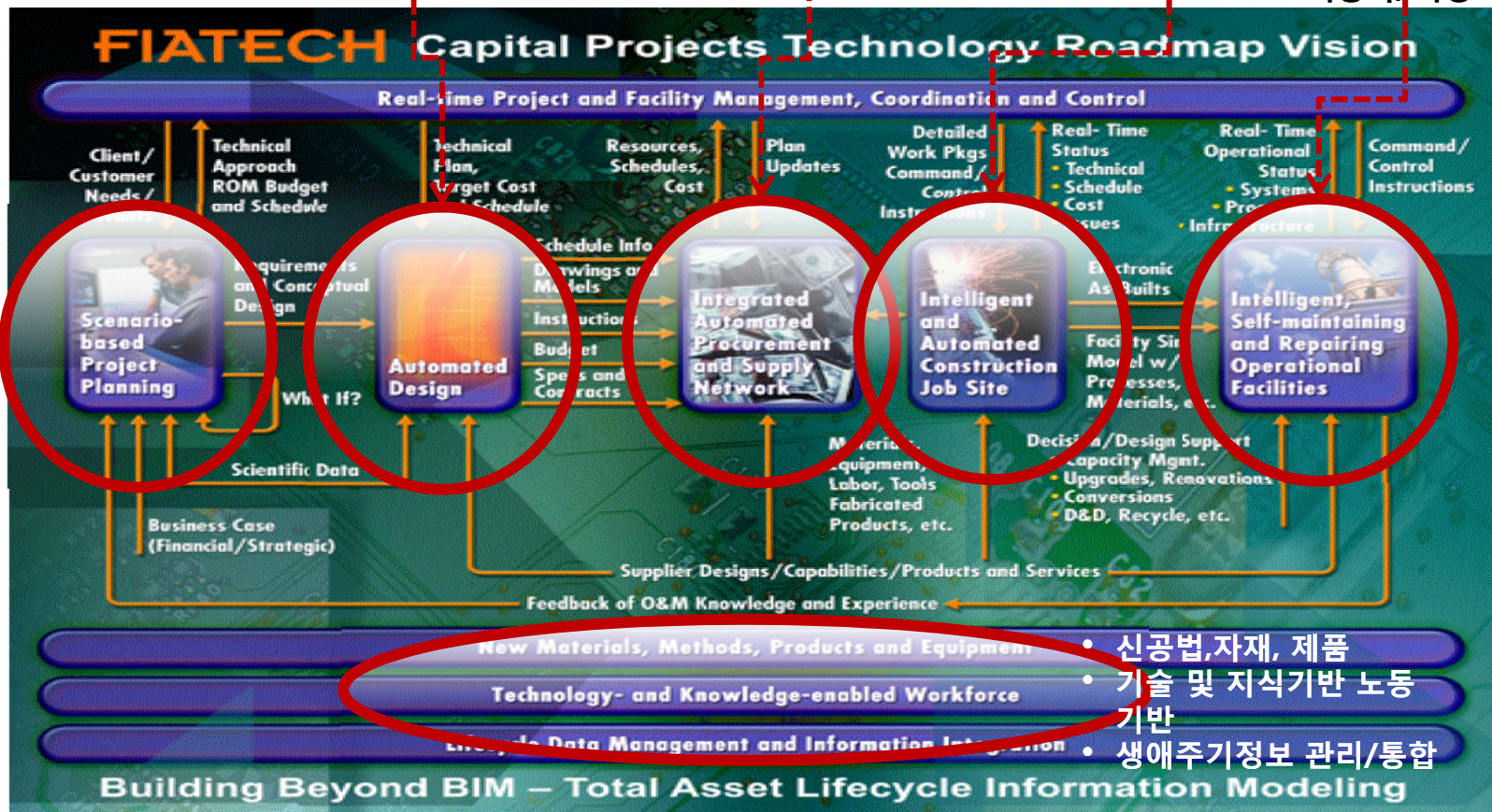
생애주기 기반 첨단 설계 및
표준화 유도
(BIM 설계 기반)

정보화 기반
구매/조달 시스템 구축
및 Supply Chain 관리

모듈/자동화 등 첨단
시공 및 지능형 현장
관리

시설 운영유지의
정보화,
지능화, 자동화

전 생애주기 정보에 의한
시나리오 기반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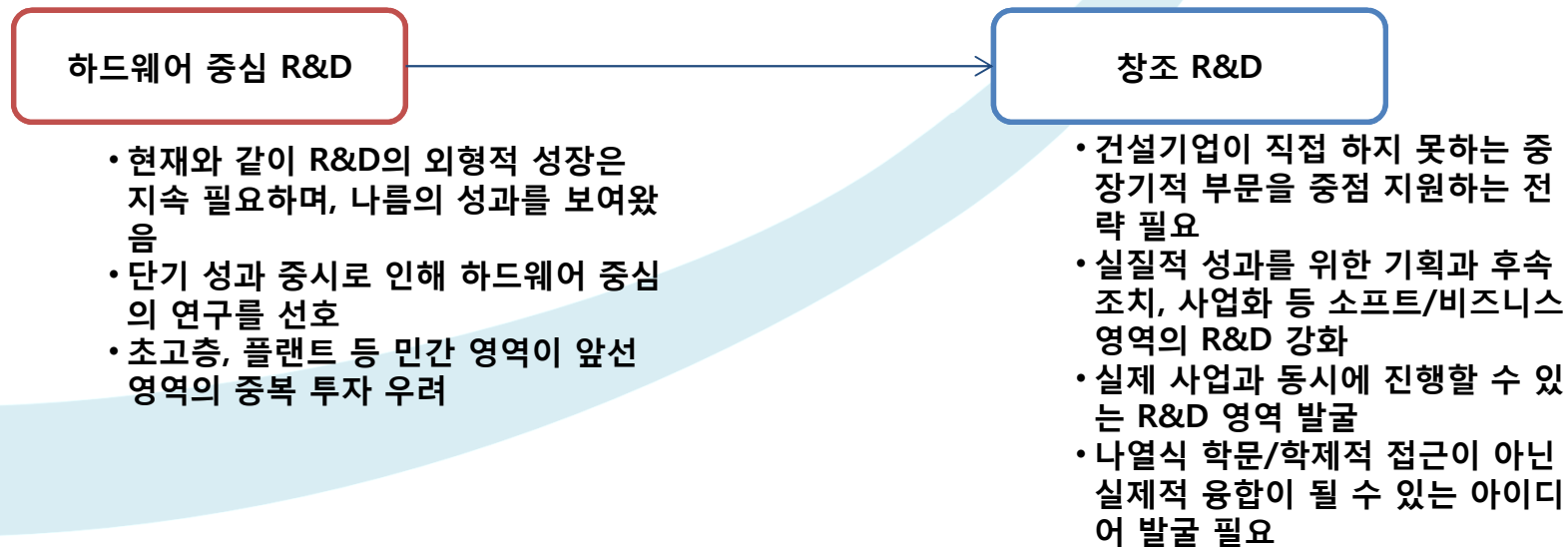
- 신공법, 자재, 제품
- 기술 및 지식기반 노동기반
- 생애주기정보 관리/통합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의 방향과 전략(5)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행 규제 완화를 위한 기초 변화 필요



유연하고 창의적 R&D의 추진과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결론

- 정부의 성장 기조인 창조경제의 주요 실천 전략
 - ❖ 건설산업이 계속해서 고민해왔던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
 - ❖ 다만, 추진 방식과 체계에서 융합과 협력, 그리고 창의성을 강조
 - ❖ 강한 중소기업은 건설산업의 특성상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융합과 협력, 창의성은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조가 되어야 함
 - ❖ 현 정부 정책 기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됨
 - ❖ 1등 산업은 시장의 불황과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와 발전의 계기를 만듦
-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해소/혁신이 요구
 - ❖ 특정 법과 제도가 아닌 연관된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범 정부적 차원의 노력 필요
- 기업의 기술, 프로세스, 조직 혁신 등을 통해 사업 혁신형 및 융합 기술형 기업으로 발전
 - ❖ 사업 혁신형: 신상품 개발을 통해 신 수요를 창출하는 기업(예: APPLE)
 - ❖ 융합 기술형: 융합을 통해 기술과 상품의 가치를 재창조 → 미래 1등 건설기업의 모습

감사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